

광주시 역점 사업 속도낸다

광주선 철도 지하화·AI영재고 설립·대중교통 할인시스템 지원 근거법안 잇따라 국회 통과...달빛철도·지역돌봄도 기대

민선 8기 광주시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광주선 철도 지하화, 광주형 대중교통 할인시스템, AI 영재고 설립 관련 지원법들이 연이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선 지하화 사업과 관련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특별법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해 시민 안전 확보, 단절된 도시의 연결, 지상 철도부지 종합 개발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하화 사업 비용은 지상 용지를 상업시설과 주거·문화 공간 등으로 조성한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 20억원을 투입해 광주

역~광주송정역 14km 구간 지하화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광주의 인공지능 인재 육성을 책임질 AI 영재고 설립 근거를 담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법 개정안'과 '대중교통법 개정안'도 같은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대중교통법 개정에 따라 광주시는 그동안 준비해온 대중교통 할인 시스템 '광주-패스'를 정부의 'K-패스'와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 비율(성인 20%·청소년 30%·저소득층 53%)을 환급하는 정책이다.

광주시는 K-패스 지원 대상으로 확대해 어린이까지 지원하고 성인 환급률도 상향하는 등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역점 사업의 기반이 될 3개의 법이 제·개정됐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달빛철도 특별법'과 '지역돌봄 통합지원법'도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자치21 등 주요 시민단체들이 공동 회원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의 회도 이날 '광주-대구 달빛철도특별법'의 21대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도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달빛철도특별법 통과를 바라는 영호남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한 뒤 "국회는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집중 해소, 동서화합을 넘어서는 국민통합을 위해 21대 국회 제412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광주-대구 달빛철도특별법을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로봇개 스팟 안녕?” 강기정 광주시장이 11일 오전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를 방문해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과 문재웅 광주공장장 등 임직원들과 만나 지난해 54만여대 생산 달성을 축하한 뒤 ‘셀토스’, ‘쏘울’ 등을 생산하는 1공장을 둘러보며 로봇개 ‘스팟’과 인사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강기정 시장, 산업현장 ‘케이크 소통’

‘기아 오토랜드 광주’서 현장간담회...“미래차 전진기지 행정 지원”

강기정 광주시장이 11일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기아 오토랜드(AutoLand) 광주' 방문을 시작으로, 2024년 산업현장 소통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 실국장들과 함께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강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스포티지와 셀토스 모형의 케이크를 전달하고, 지난해 역

대 최대 생산 성과를 이룬 '기아 오토랜드 광주'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강 시장은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품질 좋은 자동차 생산에 심혈을 기울인 덕분에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창립 이후 역대 최대 생산을 달성했다”며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미래차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겠

다”고 말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지난해 연간 내수 18만 7968대, 수출 35만3132대 등 54만1100대의 차량을 생산하며 창립 이후 역대 최대 생산 기록을 달성했다. 앞서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역대 최대 생산량은 2014년 53만8896대다.

광주시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선전에 힘입어 미래차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시는 올해 미래차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자동차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건립도 추진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치와 문학 손잡고 나아가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6> 이근모 광주시 문인협회장·시인

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주변은 선거 이야기가 술렁거린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동시에 정치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 속에서 현실과 사회현상에 정치라는 것은 불가분한 관계라고 생각한다. 이즈음에 주변인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논쟁거리와 담론거리에 대해 문학인 한 사람으로 문학과 정치라는 관계 속에서 이번 총선과 대응해 서술해 보고자 한다.

얼마 전 '성탄절의 비극'이란 제목으로 가족을 살리고 숨진 가장에 대한 기사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하루 40명이라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시사평론을 봤다. 또 다소 감성적으로 묘사한 '정치는 사람들의 고통과 꿈을 읽어내는 직업'이라는 문장도 눈에 띄었다. 이러한 중심 제제의 영역은 바로 현실비판 문학, 저항문학, 참여문학 등에서 외면할 수 없는 중요 영역이고 이를 정치 문학이라 한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필자가 우려하고 공분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사항을 참고해 예비 당선자들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3포세대(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넘어 5포, 7포 세대로 대변되면서 타성공론뿐인 복지국가에서 희망이라는 뺄 한 조각도 만져볼 수 없는 청년층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뉴스거리가 이어진다. 이제 놀라울 것도 없이 황폐화되는 국민 정서와 극단적 선택에 대한 모방 내지 학습화라는 미디어의 역기능을 문화적 시스템으로 점검하는 공문화 과정을 회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머리 맞대고 매달려야 할 문제인 것이다.



문득 떠오르는 필자의 미시적인 제안 사항은 '독거노인을 위한 로봇 보금'에서 사회적 박탈감과 소외로 인한 은둔형 외톨이들과 극단적 선택 예후가 높은 청년층을 파악해서 AI 로봇을 보급

한다면 그나마 로봇과의 상호작용으로써 의사소통 부재로 인한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 선택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해 본다.

필자는 교육행정가로서 현장에서 부대끼며 터득한 사회현상과 인간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노력한 경험이 있다. 이제 문학단체의 수장이 돼 문학인으로서 군중 속 고독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다루고 살피는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싶다.

광주시 문인협회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직업을 통해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인적 자원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자부한다. 문학과 예술, 의료인, 사회복지 전문가들과 논의한다면, 실제적 접근법을 개발하고 지원한다면 '언어예술로서의 문학'을 넘어 '삶으로서의 문학'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독거노인을 위한 로봇 보급 확대를 사회적 박탈감과 소외로 인한 은둔형 외톨이들과 자살 예후가 높은 청년층까지 보급 확대 ▲소외계층과 자살 위험 노출자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문화적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 구축, 문학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문학과 예술을 실용주의로 환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 수립 ▲표플리즘적 선동 정치인이 아닌 진정한 미래를 예측하고 이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인 등이다.

이러한 바람으로 22대 국회는 문화예술의 중심축인 문학인들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비정상적으로 치닫고 있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아우르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전남 중소기업 육성자금 3500억 투입

최대 3억원 대출이자 우대 지원

전남도가 고품질·고급리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정책자금 융자 규모는 3500억원 규모로, 임차료나 인건비, 연구개발비에 사용할 수 있는 운영자금 2800억원과 공장 증·개축, 설비 구입 등 시설투자를 위한 시설자금 700억 원이다.

운영자금은 3억 원까지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전남도가 대출 이자의 일부(2.0%)를 2년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회생 신청한 대우유니아 그룹 계열사 피해 협력업체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100억 원을 배정해 우대조건으로 운영한다.

우대지원 시 융자한도는 5억 원, 이자는 2.5%까지 확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유망중소기업·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소재부품뿌리기술전문기업 등도 우대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전남도에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 8년간 5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을 시중 은행에서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의 경우 2.5% 고정금리이며, 그 밖의 기업은 3.0%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현재 신청은 현장 접수지만 올 하반기부터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